

광주 구청장 무주공산 '4곳'

임우진 서구청장 부적격 판정…동구만 현직 도전

임 청장 탈당 · 野 후보 선전 여부 최대 변수될 듯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음주운전 2회' 별금형에 처해 당내 공직후보자·검증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5개 지자구 중 현역 불출마 3곳을 포함해 무주공산이 4곳으로 늘어 광주 지역 구청장 선거전이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지역 정기예에 따르면 임 청장은 광주시당 후보경쟁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딛고 충분한 소명을 통해 '부적격 예의자'로 인정돼 종양당 최고위에 회부됐으나 두 차례 보류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부적격 처리 됐다.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별금형을 받은 것이 끝내 걸림돌이 됐다.

이로써 임 청장은 '여당 현직 구청장'으로서의 재선 도전이 물 건너갔고 서구청장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사라진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남게 됐다.

임 청장의 경선레이스 이탈로 광주지역 5개 구청장 중 무주공산은 기준 3곳에서 4곳으로 늘게 됐다. 송광원 북구청장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고, 최영호 남구청장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체급을 올려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현직의 악단 이탈로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는 일찌감치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다.

동구청장의 경우 유일한 이당 소

속인 김성환 청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과 갈리서며 탈당 후 평화당행을 결정, 예측불허 안개 속에 빠져들었다. 민주당에서는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양혜령 치과병원장, 청년 대표 강수훈 후보 등이 각축이다.

서구청장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임 청장 외에 같은 당 김보현·김영남 시의원, 김성현 전 시당 사무처장, 서대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김금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위원 등이 도전장을 낸 상태이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길수 세무사, 무소속은 심철의 시의원 등이 거론된다. 임 청장의 무소속 결행이나 평화당 입장 여부가 관심사다.

남구청장 선거는 유력주자인 성현출 남구문화원장과 조성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 전문위원이 후보 경쟁에서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병내 청와대 행정관, 김용집 시의원, 임현진 전 광주신보 이사장, 정재수 전 광주도시철도 본부장, 최진 동남갑 위원장 등이 민주당 경선에 나섰고, 평화당에서는 김민곤 세무사가 링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청장 선거도 민주당에서 김동찬 의원이 시의원 선거로 U턴하면서 문상필·조오섭 시의원, 문인전 행정부시장, 김상훈 북구의회 의

비관료 출신이 특세해온 남구는 전임 청장의 의중 권리당원 중심의 당심이 최대 변수이고 관료 출신이 강심이 보여온 북구에서는 고위관료 출신과 실력파 시의원들이 맞붙고 평화당에서는 시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내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광산구에서는 민형배 청장의 조직력과 국회의원 두 섭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자존심,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가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뉴시스



"나주영산강마라톤대회 선전하세요" 영산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주관, 사랑방, 무등일보 후원 '제5회 나주 영산강 마라톤대회'가 2000여명의 전국 마라토너가 참여한 가운데 1일 오전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지고 있다.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장, 김옥기 전남도의원, 이민준 전남도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강인규 나주시장, 이개호 국회의원, 윤장현 광주시장, 노문철 한전광주전남지역본부장 권한대행 등이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3파전'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간 '티격태격' 신경전

김영록-신정훈-장만채 간 물고 물리는 공방전

3파전으로 치러지는 6·13 지방 선거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간 '티격태격' 신경전이 치열하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일 '조건부 입당'이 허용된 장만채 전 교육감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서약서 예비후보'가 탄생할 판"이라며 "이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아닌 상대 당 안철수 후보를 불러 초청 특강을 하게 한 것과 전 교육감의 행태 등을 중앙당이 '해당행위'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교육감은 DJ정신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입에 담기 전에 '안철수 지원' 등 그동안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민주당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전 교육자로서의 최소한 예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 민주당 입당이 확정된 장만채 전 교육감은 이날 "중앙당에서 2주일에 걸쳐 현미경 검증을 한 뒤 통과된 사안에 대해 네거티브 공방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우리 캠프에도 다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제보가 있따르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이쳤다.

장 전 교육감은 "사상 최대 위기

를 맞고 있는 농어촌 교육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을 불러 특강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만을 거론하며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며 아름다운 정책 선거를 재인했다.

앞서 민주당 신정훈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만채 전 교육감의 '슬그머니 입당'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영록 전 장관은 공식적인 후보등록 일정과 당규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발상이자 정치 우선, 우위의 전형적인 구태를 되풀이했다"고 두 후보를 짜잡아 비판했다.

물류 혁신과 신해양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비전을 선포했다"며 "광주 센트럴파크'와 '518m 빚의 타워'는 이에 비견할 100년 미래계획으로 내놓은 것으로, 다른 예비후보의 미래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는 정책토론은 TV토론 방식으로 하되, 진행자와 패널의 구성은 언론인·경제전문가·교수 등을 선정해 상호 토론하고 제안했다. 또 지역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방송, 지역 언론보도를 통한 지면 생중계를 병행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양향자, 광주미래비전 후보자간 정책토론 제안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1일 "광주 미래비전 놓고 후보자 간 정책토론을 벌이자"고 공식 제안했다.

양 예비후보는 전날 "당원 명부 불법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다른 예비후보들도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이번 선거는 '새로움'이 날을 예 책임을 묻는 선거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거"라고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다.

양 예비후보는 "광주에서는 정책선거는 시리지고 후보들 간 이 합집산이나 당원 명부 유출로 경선 구도가 엉망이 됐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와 현명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의 10년, 30년, 100년 뒤 미래 비전을 만들 후보가 누구인지, 심도있는 토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은 최근 부산행이



손 맞잡은 민주평화당·정의당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합의식에서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 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재품의 모든 것

광주전남석제품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